

“유쾌·통쾌 ‘나쁜 돈’ 추적극 기대하세요”

배우 임시완과 고아성이 요리조리 범행을 피해 세금을 미납한 자들의 돈을 추적하는 국세청 직원으로 변신한다.

임시완과 고아성은 4일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트레이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에 대해 “국세청이 배경이지만, 어렵지 않고 유쾌하고 통쾌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출을 맡은 이승영 PD 역시 “개성 만점의 독특한 인물들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나쁜 놈과 그 뒤에 숨은 나쁜 돈을 찾아내는 유쾌한 추적극”이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트레이서’는 국세청 조세 5국이 ‘나쁜 돈’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다. 임시완은 뻔뻔한 성격의 지닌 조세 5국의 유능한 팀장 황동주 역을, 고아성은 정면 돌파가 특기인 팀원 서혜영 역을 맡았다.

드라마 ‘미생’ (2014)에서 인턴 장그래 역으로 사랑 받았던



고아성

MBC 새 금토드라마 ‘트레이서’ 7일 첫방송

국세청 조세 5국 배경...임시완·고아성 주연

PD “개성만점 인물들 기상천외한 활약” 재미

임시완은 “그때(‘미생’)는 말단 사원이라 지시를 따르고, 명령에 움직이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역할”이라며 “직급이 올라서 좋아했는데, 지시하다 보니 외워야 할 대사가 많아졌다”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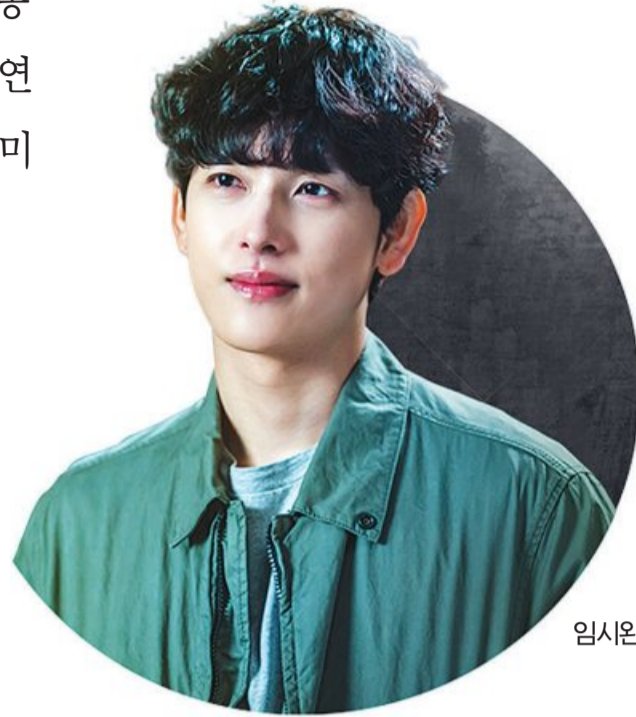
그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국세청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중주 캐릭터는 말과 행동이 재기발랄한데, 그래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함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고편에서 나왔듯 망치로 (벽을 깨고) 돈을 찾는 과정 등 유쾌하고, 통쾌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모습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영화 ‘삼진그룹 영화토익반’ (2020)에서 회사가 은폐하려는 사건을 들춰내려는 여사원 이자영 역으로 열연한 고아성은 “직장인 여성들을 구현하는 재미가 있다”며 “서혜영은 (미남한 세금인) 나쁜 돈을 찾으러 가는 역할인데, 통쾌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도 편하게 다가갈 이야기 기이길 바란다”며 “배우들의 케미(궁합·케미스트리)나 사건의 흐름이 아주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과 함께 박용우가 조세국 에이사로 활약했으나 현재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일인 조세 5국 과장 오영 역으로 호흡을



임시완

맞춘다.

박용우는 “오영 캐릭터는 현실에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공감할 부분도 있고, 그걸 넘어선 어른의 성장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국세청을 소재로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고, 긴박하고, 흥미롭고, 스피디한 드라마”라고 말했다.

오는 7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웨이브에서 동시 공개. /연합뉴스

전도연, 킬러로 돌아온다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 주연

배우 전도연(사진)이 전설의 킬러로 변신한다.

넷플릭스는 변성현 감독의 신작 ‘길복순’ 제작을 확정하고 전도연, 설경구, 이송, 구교환을 캐스팅했다고 4일 밝혔다.

영화 ‘길복순’은 청부살인업계의 전설적인 킬러 길복순이 회사와 재계약 직전,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다.

전도연이 명확한 상황 판단으로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초 A급 킬러이자 15살 딸의 교육이 어렵지만 한 싱글맘으로 이중 생활을 하는 주인공 길복순을 연기한다.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킹메이커’로 변 감독의 페르소나가 된 설경구가 길복순의 재능을 알아보고 대적할 자 없는 킬러로 길러낸 스승이자 청부살인업계 M.K의 대표 차민규 역을 맡았다. 전도연과 설경구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2001), ‘생일’ (2019)에 이어 세 번째 호흡을 맞추게 됐다.

이송이 차민규의 동생이자 M.K의 이사 차민희로, 구교환이 능력은 A급이지만 차민규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M.K 소속 킬러 한희성으로 함께한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RM·진

코로나 완치 격리해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김남준)과 진(김석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진

RM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4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멤버 RM과 진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늘 낮 12시부터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RM과 진 모두 격리 기간 중 건강 상태에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진의 경우, 재택 치료 초기에 미열 등 경미한 증세를 보였으나 완쾌됐다”고 전했다.

앞서 RM과 진은 지난달 25일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RM은 작년 11~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콘서트를 마치고 현지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하다가 귀국한 뒤 진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됐다. 진의 경우, 지난달 감기-몸살 증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슈가에 이어 RM, 진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멤버 모두 재택 치료를 마치고 격리에서 벗어나면서 조만간 BTS 멤버 전원이 모이는 활동도 가능할 전망이다.

BTS는 지난해 미국에서 연 콘서트 이후 장기 휴가를 받은 상태다. 이들은 한국 시간으로 다음 달 1일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후보에 올라 트로피를 노린다. /연합뉴스

한국 예능 ‘솔로지옥’

넷플릭스 첫 10위권

‘오징어게임’은 순위권 밖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10위 안에 진입했다.

3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파트홀’에 따르면 ‘솔로지옥’은 전일 기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 10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과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1위에 올랐고, 홍콩과 태국에서 2위, 말레이시아와 대만에서 3위를 기록하며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솔로지옥’은 싱글남녀들이 ‘지옥도’라고 불리는 무인도에서 생활하다 커플이 되면 ‘천국도’로 불리는 초호화 호텔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짜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18일 1.2화가 공개된 이후 꾸준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솔로지옥’은 총 8부작으로 매주 토요일 2회씩 공개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 MC 및 제작진. 규현, 홍진경, 김나현 PD, 김재현 PD, 한혜(왼쪽부터).

며, 지금까지 6화까지 공개됐다.

여름날 해변을 배경으로 촬영된 ‘솔로지옥’은 한국판 ‘투 핫’으로도 불린다. ‘투 핫’은 무인도에 갇힌 남녀가 솔직하고 뜨거운 데이트를 즐기는 미국 예능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솔로지옥’은 무인도에 지어진 세트장과 고급 호텔 등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며 ‘환승연애’, ‘돌싱글즈’, ‘나는 솔로’ 등 기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셜미디어(SNS) 팔로워 100만명을 거느린 인플루언서 프리지아(본명 송지아) 등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지닌 출연진

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K-드라마 열풍을 몰고 온 ‘오징어 게임’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전일 기준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1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18일 공개 하루 만에 4위로 순위권에 진입한 이후 106일 만이다.

한국 첫 우주 SF 시리즈 ‘고요의 바다’는 공개 직후 7위에서 3위까지 순위가 올라갔지만, 연말연시 ‘코브라 카이’, ‘위체’, ‘에밀리, 파리에 가다’ 등 새로운 작품들이 공개되면서 5위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